

제 1 교시

국어 영역

순수국어

[5] 2014. 06. B형 [31~33]
와사등 지문

안녕하세요. 순수국어입니다.
6월 모의평가 이후 첫 번째 칼럼이네요.

앞으로의 칼럼들은 다소 문학과 화작문에 좀 더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비문학은 얼마 전 책으로 출간된 '순수국어'에도 많이 실려 있기에 많이 다루지 않은 파트들을 칼럼에서 다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제 입장에서는 '문학'이 전할 말들이 훨씬 많기에 칼럼으로 못쓴 것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비문학이야 한 문단씩 끊어가며 생각을 서술하면 될 일이지만 문학은... 특히나 소설이나 극 같은 장르는 어디서 끊고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항상 고민이었어요. 칼럼의 틀도 그렇고, 글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해오듯 형식적인 부분보다 내용에 더 주목하면서요. 칼럼과 문학이라는 '형식'을 맞추는 것이 다소 어렵더라도 그보다 '내용 전달'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그동안의 칼럼을 써오면서 제 말을 오해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결코 '참고서에 나올 법한 한 줄 짜리 주제 정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니까요.

자꾸 학생들이, 그 한 줄짜리 주제 정리로 문제를 풀면 다 풀린다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닌데...

혹시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노래와 이야기'라는 시 기억하시나요? 그 시의 한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베
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단순히 참고서처럼 '한 줄 주제'를 찾고, 정리하는 것 자체는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는 정리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고작 이런 것을 강조해왔을까요?

항상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이전의 '과정'입니다. 과정에 대한 생각 없이 결과만 정리만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주제를 찾는다'라는 것은,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두 편의 시를 소재로 그 말의 의미에 대해 함께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섬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단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다.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지문 분석

[(가), 1연]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시에서 중요한 건? 상황, 그리고 정서. 항상 ‘내용’에 주목하며 해석해 보자.

첫 번째 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외롭고, 슬픈 정서.

‘차단한’ 등불이 ‘하나’ 있다. 둘도 아니고 하나. 그게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고 하고...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시어 하나하나가 전부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차단한’은 무슨 의미지? 글썽. 정확히는 몰라도 문맥상 외롭고 쓸쓸한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되겠지. 차가운 정도면 되겠다.’

‘어딜 가라는 신호나’라는 말 역시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못 잡았다는 말이니가 위에서 생각한 정서와도 잘 어울리고.’

문학도 비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글’이지요. 글을 읽을 때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 글의 흐름을 파악해가며 읽는 것입니다. 그냥 쭉 따라 읽고 넘기는 건 흐름을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읽어 넘기는 것일 뿐이지요.

글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부분 한 부분이 내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게 ‘글을 읽는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 2연]

긴-어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시어들이 무겁네. 1연과 마찬가지로 외롭고 쓸쓸한 느낌도 들고. 황망히 나래를 접고... 황망하다는 것도, 나래를 ‘접는다’는 말도. 하나하나가 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늘어선 고층? 고층 빌딩을 말하는 건가. 근데 ‘창백한 묘석같다’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보통 현대사에서 이렇게 도시 느낌의 말들이 나오면서 지금 같은 정서가 등장하면 흔히 ‘비판’으로 이어질 텐데 이 작품도 그렇게 되려나?

찬란한 야경... 인데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져 있다고? 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정말 현대 문명, 도시화에 대해 비판하고 싶은 게 맞는 건가?

잠깐 지금까지 읽어온 흐름을 다시 짚어봐야겠다.

외롭고 쓸쓸하고 슬펐어. 홀로 어딜 가야할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늘어선 고층 빌딩과 찬란한 야경을 보고 있지.

아, 그러면 도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쓸쓸함, 소외감’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네...!’

흐름을 파악하려 시도해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말들과 뒤에 나오는 말들을 연결지어보고, 이미 나온 말들을 표지판으로 생각하여 다음 내용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가), 3연]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어둠이 스며든다... 정말 계속 우울하네.

낯선 거리? 아, 역시 방금 전에 해석한 게 맞나보다. 화려한 도시를 낮설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거지. 찬란한 도시 이야기가 나와서 대조적으로 쓸쓸한 정서가 더 부각되고 있고, 까닭도 없이 눈물겹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해석하면 되겠지.’

방금 전 저는 글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의 모든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글을 읽는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아,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가 흔히 ‘주제’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글에서 ‘주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해온 것입니다. 주제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보다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주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주제 : 현대인의 고독감과 비애’와 같은 한 줄 정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줄 정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결과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해석을 하십시오. 문제를 풀 때에도 그렇고 평소에 공부할 때에도 말입니다.

[(가), 4~5연]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인다. 군중들이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 ‘무거운 비애’와 같은 시어들도 여전히 상황, 정서를 강화해주는 쪽으로 보면 되겠네. 정말 어둡군.

아까 ‘차단-한, 긴-어름해’처럼 ‘길-게’라는 시어에도 자꾸 ‘-’를 사용하고 있네. 근데 그것도 잘 어울리는 듯해. 나오는 시어들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데, 이런 시어들을 길게 늘어 읽으면 아무래도 좀 더 정서가 깊어지겠지.

마지막 연은 첫 번째 연이랑 비슷하네. 그런데 첫 번째 연에서 읽었던 것보다 더 슬프고, 더 쓸쓸해 보인다. 뭐... 시 전체를 읽으면서 상황과 정서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

화자는 끝까지 외로움과 쓸쓸함을 극복해 내지는 못했군. 그렇다고 비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의 외로움과 쓸쓸함, 소외감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고 작품이 끝났어.’

처음부터 마지막 연까지 읽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상 비슷한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계속 외롭고 쓸쓸하고 더 슬프다는 쪽으로 해석했지요. **글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어들을 가능한 한 ‘그 흐름’안으로 집어넣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방향 감각 상실, 도시 문명 속에서의 비애감 등의 어려운 용어로 정리하며 읽은 것도 아닙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 1~3연]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

순수함을 애기하고 싶은 건가? 소녀, 소년을 설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고향’이라는 시어도 있고. 머리가 마늘쪽같다는 것도  
참 순수하고 정겨운 표현이네.

여기에 만약 ‘고향’이라는 시어가 없다면? 소녀, 소년이 아니고  
그냥 여자, 남자라면? 내용이 좀 이상해지잖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고 하네. 방금 읽었던 (가)와는 다  
르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그걸 그리  
워하는 걸까?

그 뒤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 듯 그렇게...  
전부 다 그냥 ‘사랑스러운 들길’에 대한 얘기 아니야? 아지랑이,  
태양, 제비 등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하긴 힘들어  
도 생각해온 ‘맥락’이 있으니까 그 흐름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  
지. 사랑스럽고 정겨운, 그런 들길로.

‘천연히’는 무슨 뜻이지? 몰라.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모르  
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천연? ‘천연 화장품’ 말할  
때의 그 ‘천연’인가?

앞에서 생각했던 정서가 순수함, 사랑스러움, 정겨움 등이었  
으니까 맞을 것 같네.

두 번째 연에서 이런 저런 비유를 많이 한 것도 그렇고, ‘천  
연히’라는 세 글자가 하나의 연인 것도 그렇고... 참 잔잔하고  
천천히 시상이 전개되고 있구나. 그게 이 시의 상황과 정서에  
잘 어울리고 있고. 역시 시인들은 정말 대단하네.’

잠깐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지요.

만약 시의 상황과 정서가 ‘일제 강점기에서의 극복 의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처럼 시상이 잔잔하고 천천히 전개된다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울리지 않  
겠지요?

만약 사랑하는님이 죽은 상황에서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  
시라면? 역시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즉 시를 해석할 때에도 **작품의 모든 부분이, 가장 큰 하나의  
흐름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민고’ 해  
석하면, 시의 해석이 훨씬 더 수월해질 테니까요.

[(나), 4연]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어? 오래오래 잔광이 부시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라... 되게 예쁘네.

아까 나온 소녀와 소년, 들길에 이 마을에 있는 건가? 전부 잘 어울리는 말들이고 정말 순수해 보여. 마지막까지도 마치 ‘어부사시사’같은 작품을 보는 것처럼 한적하고, 이상적인 공간의 느낌이군.’

이제, 지금까지 해석해 온 그 흐름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봅시다.

**문제 분석**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단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1번 선지 - 주된 정서가 변화하는 작품들이 아니었어.
- 2번 선지 - 대상에 대한 경외감...? 뜬금없이 무슨 말이래.
- 3번 선지 - 공간에 대한 인식... 아! 답이네.’

1번 선지에서 중요한 말은 ‘수미상관’이 아니라 ‘정서의 변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미상관 따위의 ‘형식적인 특징’보다도 정서의 변화 같은 ‘내용적인 특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2번 선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영단적 표현이라는 ‘표현 기법’보다도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정서, 즉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3번 선지도 그렇습니다. 비유적 표현? ‘시’문학인데 비유적 표현이 안 쓰일 리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공간에 대한 인식’일 테고... 놀랍게도 (가)에서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외로움, 쓸쓸함의 정서가 심화되었고, (나)에서는 계속 ‘공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정겨움, 순수함, 사랑스러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시를 읽는 도중에 생각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리 ‘개념어’로 정리해둘 수 있을 만한 성격의 말도 아니지요. 문제를 풀 때에 비로소 판단하기 시작하면 되는 말입니다. 지문 해석이 정확히 되었다면 바로 눈에 띄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가원 문제를 풀 때! 지문에서의 ‘흐름과 내용’에 주목하며 글을 읽어 간다면, 그 자체가 ‘가장 정확한 수준에서 선지화’ 되어 있는 놀라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음... 답 2번인가? ㉣을 보면... 맞네.’

우리는 시를 읽으며 ‘내용’에 주목했고,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상황과 정서를 의미하지요.

선지를 쭉 훑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모든 선지를 다 보기도 전에, 2번 선지에서 시선이 걸리게 되어 있지요.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힌다?

우리가 읽어왔던 상황과 정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에서는 계속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내용이었고, (나)는 거리감을 ‘좁힐’ 만한 흐름이 아니었지요. 거리를 둔 적이 없는 걸요.

지금 (가) 시가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이든, 다른 무엇이든 거리감을 좁힐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대충 푸는 것’과 ‘내용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글의 내용적인 흐름’으로 해결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빠르게 답이 나오지요.

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선지의 뒷부분만 보고 문제를 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용적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실음,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보기>를 참고하라고 하네. 뭐 참고해 보면 되지.

그래, 김광균은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 (가) 시를 읽으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던 내용이고.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 현대 문명을 보며 대조적으로 자신의 상실감, 소외감을 강조하고 있었지.

박용래는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고? 아까 해석할 수 있었던 내용은 순수함, 사랑스러움, 정겨움..

때 묻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사랑스러운 들길과 마을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였구나. 음... 토속적, 자연의 지속성, 인간과 자연의 조화. 뭐 그렇군.

1번 선지 - 그렇겠지.

2번 선지 - (가)가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한다고? 답 2번이네. (가)에서 강조하는 건 ‘외로움, 쓸쓸함’이니까.’



그동안 시를 해석할 때, 어떤 것들에 주목하며 읽으셨나요?

수미상관? 역설법? 영탄적 어조? 대구법?

1:1대응, 내용 일치... 사실 모두 결과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선지를 '보고' 지문과 1:1 대응하고, 문제를 '보고' 지문과 내용을 대응하고, 문제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이젠 '글 자체'에 주목하십시오.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한 줄짜리 주제 정리가 아닌, 진짜 주제를 찾는 과정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간다면 문제를 보기 이전에 미리 문제와 답까지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뵈겠습니다.